

바람직한 초등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념도 접근

한기순(韓起順)*

이현주(李賢珠)**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초등 영재교사의 자질이 무엇인지 를 탐색적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영재교사가 각각의 자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11명의 초등영재교사가 개념도 도출을 위한 초점집단으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초등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진술문을 산출, 종합, 분류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자료를 토대로 다차원 척도와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단계는 진술문을 기초로 작성된 설문 조사 단계로 초등학교 영재교사 193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초등 영재교사에 대한 총 40개의 구체적인 진술문이 산출되었으며 이들 진술문에 대하여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 .291이 도출되었다. 이를 개념도 분석을 한 결과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은 9개의 범주로서 각 범주명은 '학문적 전문성' '수업에서의 개방성·융통성' '유능한 교수학습능력'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 '이해와 관용의 자세' '인내심·성실성' '지원적·수용적 자세'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 '상황기반 전문성' 범주로 구분되었다. 둘째,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은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서 '이해와 관용의 자세', '인내심·성실성', '지원적·수용적 자세', '유능한 교수학습능력', '상황기반 전문성',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 '학문적 전문성', '수업에서의 개방성·융통성',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였으며, 중요도와 실행수준 간에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어: 개념도 연구법, 교사 자질, 초등학교 영재교사, 영재교육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 인천석정초등학교 교사

I. 연구의 필요성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영재교육은 하나의 특수한 지도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한 관련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그 대표적 학자로 Landrum(2001)은 영재교육은 일반 교육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학급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좋은 학급교사가 좋은 영재교육 담당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 담당교사에게는 별다른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연수를 실시하고 영재교육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마저도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담당교사 중 약 34%가 영재교사 연수 없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교·강사들은 거의 영재교사 연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정현철, 2007).

그러나 영재교육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능한 자질을 갖춘 교사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재교사가 우수한 잠재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잘 판별할 수 있고, 질 높은 영재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능한 자질을 갖춘 영재교사야말로 영재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라 말할 수 있다(김홍원, 2000). 따라서 영재교사는 영재교육의 중심에 있으며, 영재교육의 질은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대상이 평범한 학생일 때와는 다르게 영재아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하고, 일반 교수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재아를 교육할 수 있는 자질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 자질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들이(강호감, 최선영, 2004; 김광찬, 2005; 박경희, 서혜애, 2007; 이윤옥, 김현철, 이정규, 2007; 이은화, 2009; 조연채, 2005; 조형숙, 2003; 전경원, 2000; 정송, 2004)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재교육 담당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연구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재교사의 자질은 크게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Whitlock과 DuCette(1989)는 그들의 연구에서 10명의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초등학교 영재 지도교사와 10명의 평범한 능력을 보이는 초등학교 영재 지도교사의 자질을 비교한 바 있다. 두 집단 교사 모두 '영재 학생을 좋아해야 한다'라는 것을 1순위로 선정한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 순위에서는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우수한 교사들이 영재 학생을 더 옹호하고, 그들의 장점을 더 강조하고 찾으려고 하며, 영재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평범한 영재교사들은 그러한 정서적 태도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즉, 영재 교육에 대한 열정, 자기-신뢰감, 성취 지향성, 영재 교육에 대한 헌신, 영재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능력 등은 인지적 능력보다 정서적인 능력과 보다 관련을 맺는

다고 볼 때, 우수한 영재 교사와 평범한 영재교사를 구분 짓는 커다란 차이는 지적인 능력보다 정서적인 태도임을 강조한다.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민족사관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교사의 특성'을 조사한 국내 연구의 결과도(김홍원, 2000) Whitlock과 DuCette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학생들은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꼽고 있는데,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에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는 선생님의 인격(자상함, 친절, 애정, 포용력 등)', '대화 능력', '학생들의 필요를 이해', '학생들과의 눈높이 일치', '인성지도 및 상담 능력' 등이 포함되어, 교사의 정서적인 능력이 중요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영재교사는 지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사 선발과정에서 교원연수를 통해 길러지기 어려운 교사의 철학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재교사의 전문적 자질 및 특성, 인지능력 향상에 보다 효과적인 영재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영재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현재 영재를 지도하고 있는 영재교사들은 본인 스스로 얼마나 영재교사로서 전문성이 있고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양희정(2007)은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의 37.7%만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였고, 51.1%의 교사들이 영재수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89.4%의 교사들이 정기적인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전문성과 관련하여 현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양성·임용방식에 대해서 42.3%의 교사가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윤옥, 김현철, 이정규(2007)는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서 각 분야별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고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인데, 그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과 교수능력에 대한 연구가 드물게 수행됨을 지적하였다. 한기순과 양태연(2007)도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국내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의 주제와 대상을 분석한 결과 영재교육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변인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재담당 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29편(약4%)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된 내용들 또한 지금 현 상태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영재교사의 질 제고 측면보다는 영재교육 인식이나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가 대부분이라고 보고하였다.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연구가 몇몇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재수업을 이끌어가는 영재담당교사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영재교사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현장감 있게 도출하고 탐색한 경험적 연구가 매우 드문 형편이다(박경희, 서혜애, 2007; 이은화, 2009). 또한 현장의 영재교사들이 제기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 자질 중 어느 자질이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며 그러한 중요 역량들을 영재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은 더욱 부재한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인식을 구조적인 개념화 과정을 통해 양적 및 질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방법인 (Gol & Cook, 2004) 개념도 접근을 통해 영재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을 살펴보았다. 개념도 연구법은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요소, 잠재구조 등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방법은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장점만을 살려 만든 통합적 연구 방법으로 실제적인 맥락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접근과 유사하나,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이 이들의 경험 내용과 잠재구조를 확인하는 연구 절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양적 연구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Goodyear, Tracey,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 상담이나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개념도가 종종 활용되고 있으나 영재교육 분야에서 개념도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최근 들어 수행된 두 편의 연구(김홍희, 한기순, 2011; 한기순, 이정용, 2011)가 전부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재 담당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을 그들의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 직접 진술해보는 개념도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개념도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지 제작 및 검사를 통해 실제 영재수업에서의 실행수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영재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 영역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자신이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간 차이를 이해하여 영재교사로서 보다 필요한 영역 혹은 개발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 틀을 제공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영재교사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영재 교사 수준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초등학교 영재교사가 지각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 자질의 개념도는 어떠한가?

나.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해 초등학교 영재교사가 지각하는 중요도는 어떠한가, 이를 실제 실행수준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초점집단 11명의 영재교사와 설문집단 영재교사 198명 두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개념도 연구를 위한 초점집단과 관련하여 Johnsen 등(2000)은 개념도 제작에 있어 초점집단이 보통 10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Trochim(1989)도 유사하게 단일 개념도 제작에 있어 초점집단에는 엄격한 제한이 없어 최대 75에서 80명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10에서 20여명 정도의 초점집단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정찬석, 2005). 상기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수도권의 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및 시교육청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사를 하고 있는 초등교사 11명을 초점집단으로 뽑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도권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및 시교육청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사를 하고 있는 초등교사 11명(남 5, 여 6)은 모두 영재교육관련 연수를 이수한바 있으며 3년 이상의 영재학급지도경력과 함께 모두 대학원에서 영재교육 전공 석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영재교사 자질의 인식에 대한 진술문을 작성, 명료화, 분류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2차 조사(설문단계)를 위해 영재담당교사 연수(60시간) 경험이 있는 영재학급 담당교사 19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193부(남 71, 여 122)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영재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에 대한 준거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방법 절차에 대해서 사고(thinking) 또는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아이디어를 종합, 편집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의미 있게 분류함으로써 특정한 현상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연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개념도 준비 단계로 아이디어 산출단계이다. 영재교사들이 지각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영재교사 11명과 일정을 정하여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영재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연구자가 참여자들에게 목적을 설명한 후, “영재교육을 해 오시면서 선생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영재교사의 자질들은 무엇입니까?”라고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브레인스토밍 회기는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집단 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은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둘째 단계는 아이디어 종합단계이다. 면접을 마친 후 연구자를 포함하여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 1명과 함께 면접 내용을 Giorgi(1985)의 질적 분석의 4단계를 바탕으로 핵심문장을 정리하였다. Trochim(1989)은 대략 80 ~ 100개 정도의 핵심문장들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최근 연구들(최윤정, 김계현, 2007; 최한나, 김창대, 2008)은 약 50개 정도의 문장 수가 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 50개 전후에서 핵심문장을 정리하였다. 이때 중복되는 아이디어는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의미가 모호하거나 개인적인 시각을 반영한 아이디어는 제외하였다. 생성된 진술문 내용을 명료화하여 진술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여 개념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이때 가능한 아이디어 원래의 뜻을 유지하도록 수정을 최소화하였다. 선정된 11명은 최종적으로 40개의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 분류 단계이다. 산출된 진술문을 무선화 하여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가까운 묶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카드에 기록하여 진술문 세트를 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나왔던 핵심문장들 중에서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끼리 묶고 하나의 범주로 진술문을 분류한다. 모든 진술문은 둘 이상의 파일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각의 문항은 하나의 파일에만 분류 할 수 있다는 조건만을 제시하였다(Paulson, & Worth, 2002). 한 파일에 묶인 진술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각 파일에 가장 부합한 명칭을 쓰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도 출된 진술문 분류 결과를 개념도 분석을 위한 다차원 척도의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진술문의 중요도와 개인의 실행수준 평가 단계이다. 실행수준이란 영재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을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가 탐색하는 것이다. 설문지에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와 개인의 실행수준을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고 추가로 추후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성별, 근무소재지, 교직경력, 영재교육경력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3. 자료 분석

개념도 분석을 위해서 SPSS 15.0 버전을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개념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적인 진술문을 좌표 상의 점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더 빈번하게 같은 것 끼리 묶은 진술문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Kane & Trochim, 2006). 다차원 척도법 분석에 사용되는 원자료(raw data)는 11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40개의 진술문들을 분류한 결과이다. 어떤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지 두 개의 문장이 한 군집에 포함되었을 경우 0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1점을 부과하여 총 11개의 유사성 행렬(40 × 40)을 만든 후, 11명의 파일을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GSM: group similarity matrix)을 차례로 제작하였다. 결국 최종

의 개념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GSM이다(Bedi, 2006). 그 후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개념도에 나타난 점들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나타난 x, y 좌표 값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는 나타난 덴드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나타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을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군집분석을 실시할 때는 Ward의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Kane & Trochim, 2006) 그 이유인 이 방법이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중요도와 개인 실행 수준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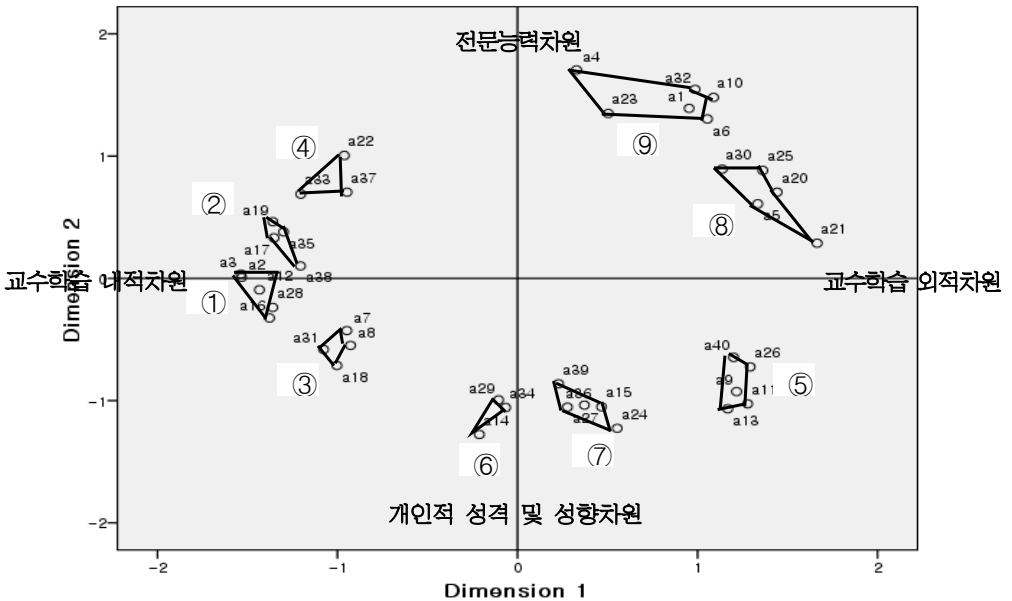
1. 초등학교 영재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개념도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 인식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토대로 진술문을 종합한 결과 40개의 진술문이 도출 되었으며, 이들 40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의 범위가 .291로 나타났다.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이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원래 유사성과 다차원 척도법을 적용한 결과 지각도 상의 대상들 사이의 거리 비교를 통해 지각도가 원래 대상 간 유사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지각도상의 응답자들이 응답한 대상 간 상이성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설명하는 값이다(차석빈 외 2008). 개념도 연구의 경우 평균 스트레스값은 0.285(SD=0.04)로 95%의 개념도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값은 0.205 ~ 0.365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stress 값은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205 - .365)를 충족시킨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6).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다차원척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로써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유사한 RSQ는 0.577로 중간 수준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군집의 수는 분석결과 도출된 덴드로그램에서 1미만의 거리 값에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군집 간 진술문과 군집 내 진술문들을 검토하여 군집의 개념적 명료성과 군집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군집의 수를 정하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를 기초로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검토하고 분류된 군집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석사 이상의 연구진 3명의 합의하에 9개로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결과 도출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과 연구 참여자들이 카드분류 단계에서 기술한 범주명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군집분석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개념도는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을 설명하는 각 진술문들이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함께 분류된 빈도를 반영하므로, 각 점들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보다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념도 상에서 가까운 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의 좌표 값을 기초로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재 담당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은 9개의 범주로 이루어져있다. 각 범주명은 ‘학문적 전문성’, ‘수업에서의 개방성·융통성’, ‘유능한 교수학습능력’,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 ‘이해와 관용의 자세’, ‘인내심·성실성’, ‘지원적·수용적 자세’,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 그리고 ‘상황기반 전문성’으로 나타났다.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과 범주의 위치 및 거리 등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구조는 크게 좌우로 ‘교수학습 내적 차원’, ‘교수학습 외적 차원’, 상하로 ‘전문능력 차원’과 ‘개인적 성격 및 성향 차원’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 ①:학문적 전문성 ②:수업에서의 개방성·융통성 ③:유능한 교수학습능력
- ④:자료활용개발 능력 ⑤:이해와 관용의 자세 ⑥:인내심·성실성
- ⑦:지원적·수용적 자세 ⑧: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 ⑨:상황기반 전문성

[그림 1]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개념도

2.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 중요도와 실행수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의 중요도 인식과 연구 참여자들의 각 개인의 실행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각 인식의 중요도는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에서 평균 3.60에서 4.65까지 분포하였고,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4.22로 나타났다. 문항 중에서 (1) 영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M=4.65$), (9) 영재의 반응에 대한 공감 및 이해와 수용능력($M=4.59$), (14) 학습활동에 대하여 영재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인내심($M=4.56$), (40) 영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M=4.56$), (30) 영재의 행동을 보고 잠재된 영재성을 관찰해낼 수 있는 능력($M=4.55$)은 높은 중요도로 인식했으며, (28) 높은 지적 능력($M=3.60$), (22) 멀티미디어 기술 및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능력($M=3.60$), (4) 영재교육과 관련된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M=3.76$)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인식되었다.

각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본인의 실행수준평가는 3.07에서 3.93까지로 분포하였고 전체 평균은 3.48로 나타났다. 문항 중 (37) 체계화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능력($M=3.07$), (28) 높은 지적 능력($M=3.13$)이 낮은 실행수준을 보였으며, (40) 영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M=3.93$), (24) 민주적인 수용태도($M=3.86$)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행수준으로 나타났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의 중요도는 이해와 관용의 자세($M=4.46$), 인내심·성실성($M=4.41$), 지원적·수용적 자세($M=4.29$), 유능한 교수·학습능력($M=4.27$), 상황기반 전문성($M=4.25$),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M=4.23$), 학문적 전문성($M=4.16$), 수업에서의 개방성·융통성($M=4.00$),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M=3.87$) 순으로 높았다. 개인의 실행수준에 대한 평가는 이해와 관용의 자세($M=3.73$), 인내심·성실성($M=3.64$), 지원적·수용적 자세($M=3.60$),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M=3.56$), 유능한 교수·학습능력($M=3.47$), 상황기반 전문성($M=3.43$), 학문적 전문성($M=3.29$), 수업에서의 개방성·융통성($M=3.29$),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M=3.26$) 순으로 높았다. 각 진술문의 중요도 평균과 본인의 실행수준을 평가한 점수의 평균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의 범주별 중요도와 실행수준 (N=196)

범주 (문항수)	진술문	중요도 (평균)	실행 수준 (평균)	차이
학문적 전문성 (5)	2 교과내용(수학, 과학, 발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 습득	4.12	3.24	0.88
	3 담당교과의 탐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4.30	3.35	0.95
	12 영재교육 이론의 충분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	4.18	3.20	0.98
	16 연구수행능력	3.83	3.08	0.75
	28 높은 지적 능력	3.60	3.13	0.47
수업에서 의 개방성· 융통성 (4)	17 가르치는 영재학생의 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교육 과정(프로그램)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4.19	3.28	0.91
	19 영재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을 자신의 수업에 과감히 투입할 수 있는 능력	4.29	3.61	0.68
	35 영재 프로그램을 간학문적(과목별로 통합) 접근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	4.16	3.38	0.78
	38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교과의 최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업내용을 구상하는 능력	4.33	3.53	0.80
유능한 교수·학습 능력 (4)	7 일반교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교수능력	3.92	3.33	0.59
	8 영재학생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이해와 적용능력	4.49	3.48	1.01
	18 영재학생들을 몰입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	4.07	3.32	0.75
	31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력(문제해결력, 창의력, 탐구력 등)을 자극할 수 있는 발문 기술	4.42	3.46	0.96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 (3)	22 멀티미디어 기술 및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3.60	3.52	0.08
	33 영재교육 관련 자료 수집, 활용 및 윤리적인 보안관리능력	4.07	3.39	0.68
	37 체계화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3.81	3.07	0.74

범주 (문항수)	진술문	중요도 (평균)	실행 수준 (평균)	차이
이해와 관용의 자세 (5)	9 영재의 반응에 대한 공감 및 이해와 수용능력	4.59	3.65	0.94
	11 영재학생에게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4.21	3.52	0.69
	13 영재학생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존중하는 태도	4.52	3.82	0.70
	26 영재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인정, 신뢰와 사랑	4.45	3.73	0.72
	40 영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4.56	3.93	0.63
인내심· 성실성 (3)	14 학습활동에 대하여 영재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인내심	4.56	3.72	0.84
	29 혁신적, 실험적, 지속적인 학습과 관련된 지적 성실성	4.22	3.49	0.73
	34 학습의 결과와 함께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	4.46	3.73	0.73
지원적· 수용적 자세 (5)	15 영재학생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	4.38	3.69	0.69
	24 교육수요자(영재학생)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민주적인 수용 능력	4.36	3.86	0.50
	27 학습 분위기를 편안하고, 개방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열린 자세	4.45	3.77	0.68
	36 영재수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교사	3.90	3.32	0.58
	39 영재학생 평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 (피드백 및 후속지도)	4.35	3.39	0.96
의사소통 기술 및 영재 판별 능력 (5)	5 현 영재선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안목	4.36	3.21	1.15
	20 동료교사와의 원만한 관계형성능력	4.17	3.63	0.54
	21 영재 학부모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4.17	3.55	0.62
	25 영재학생의 특성 및 고민을 파악하기 위한 상담 기술	4.36	3.58	0.78
	30 영재의 행동을 보고 잠재된 영재성을 관찰해낼 수 있는 능력	4.55	3.45	1.10
상황 기반 전문성 (6)	1 영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4.65	3.58	1.07
	4 영재교육과 관련된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3.76	3.30	0.46
	6 현 영재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4.12	3.37	0.75
	10 영재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	4.40	3.60	0.80
	23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능력	4.06	3.70	0.36
	32 영재교사의 업무에 대한 애정 열정 및 희생정신	4.07	3.48	0.59
전 체(40)		4.24	3.49	0.75

3.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의 중요도와 실제 실행수준의 차이

브레인스토밍 집단에서 도출된 40개의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진술문의 중요도 인식과 본인의 실행수준 간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제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보는 것은 영재교사로서의 자기성찰과 반성 그리고 소양계발을 위한 준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과 자신의 실행 수준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초등 영재교사에게 보다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 대한 준거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전체 범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비해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의 실행수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 중 ‘학문적 전문성’이 가장 많은 평균의 차이를 보이고,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이 가장 낮은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결과만 보면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 범주의 실행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이 범주는 중요도와 실행수준이 모두 다 제일 낮은 영역으로, 중요도 인식 수준과 실행수준이 모두 낮아 그 차이 또한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이다. 이 밖에도 ‘수업에서의 개방성·융통성 자질’, ‘지원적·수용적 태도’ 범주의 중요도와 실행수준 간의 차이 폭이 평균보다 낮았다.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 영역 중에서 ‘학문적 전문성’ 영역은 영재 담당 교사들은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실행수준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현저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밖에도 ‘유능한 교수·학습능력’,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 판별능력’ 범주의 중요도와 실행수준 평가 간의 차이 폭이 컸다. 모든 범주에서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의 중요도와 실행수준의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문항별로 살펴보면, ‘현 영재선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안목’이 중요도 인식수준과 실행수준 차이가 가장 높았으며(1.15), 그 밖에도 ‘영재의 행동을 보고 잠재된 영재성을 관찰해내는 능력’(1.10), ‘영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1.07), ‘영재학생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이해와 적용능력’(1.01)등의 항목에서 중요도와 실행수준 간 큰 차이를 나타내어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수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했다(표 1 참조).

<표 2> 범주별 중요도와 실행수준 평가 간의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학문적 전문성	193	중요도	4.16	.60	.87	16.020***
		실행수준	3.29	.50		
수업에서의 개방성·융통성	193	중요도	4.00	.51	.71	13.872***
		실행수준	3.29	.57		
유능한 교수학습능력	193	중요도	4.27	.48	.80	15.539***
		실행수준	3.47	.55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	193	중요도	3.87	.57	.61	10.896***
		실행수준	3.26	.59		
이해와 관용의 자세	193	중요도	4.46	.45	.73	16.816***
		실행수준	3.73	.57		
인내심·성실성	193	중요도	4.41	.48	.77	15.089***
		실행수준	3.64	.58		
지원적·수용적 자세	193	중요도	4.29	.48	.69	15.556***
		실행수준	3.60	.52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	193	중요도	4.23	.51	.80	13.415***
		실행수준	3.56	.53		
상황 기반 전문성	193	중요도	4.25	.46	.82	18.906***
		실행수준	3.43	.46		
전 체	193	중요도	4.22	.41	.74	18.332***
		실행수준	3.48	.46		

*** p<.001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초등 영재교사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영재교사가 각각의 자질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술문 생성 초점집단으로 선정된 11명은 중복되는 내용은 제거하고, 모호한 형태의 진술문은 명료화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40개의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이들 진술문을 분류하고 평정 절차를 걸쳐 개념도

를 그린 결과, 영재교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질은 ‘학문적 전문성’, ‘수업에서의 개방성·융통성’, ‘유능한 교수·학습능력’,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 ‘이해와 관용의 자세’, ‘인내심·성실성’, ‘지원적·수용적 자세’,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 ‘상황기반 전문성’ 등의 9가지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영재담당교사 연수(60시간) 경험이 있는 영재학급 교사 193명에게 각 범주를 설명하는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와 개인의 실행수준 평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은 9개의 범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구조 측면, 범주별 중요도, 범주별 중요도와 실제 실행수준 차이, 범주별로 보이는 특성 등으로 나누어 논의해 보았다.

첫째,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구조는 크게 좌우로 ‘교수·학습 내적 차원’, ‘교수·학습 외적 차원’, 상하로 ‘전문능력 차원’과 ‘개인적 성격 및 성향 차원’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교수·학습 내적 차원’은 학문적 전문성, 영재 교수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위를 말하고, ‘교수·학습 외적 차원’은 영재 교수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나타낸다. ‘전문 능력 차원’은 교사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특성으로서 후천적 학습에 의해 체득된 교사의 역할 및 유능한 교수·학습능력과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 ‘개인적 성격 및 성향 차원’은 지능과 관련된 인지적 특성과 호기심, 유머와 같은 개인의 선천적 성격 및 성향과 관련된 행위를 나타낸다. 이것은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을 영재담당교사들은 영재 교수·학습 행위 및 교사의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인식 구조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은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서 이해와 관용의 자세, 인내심·성실성, 지원적·수용적 자세, 유능한 교수·학습능력, 상황기반 전문성,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 학문적 전문성, 수업에서의 개방성·융통성, 자료활용 및 개발 능력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였다.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은 영재교사들이 인간과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용, 신뢰와 사랑, 바람직한 인성교육, 리더십, 역할모델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영재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itlock과 DuCette(1989)의 연구는 우수한 영재교사와 평범한 영재교사를 구분짓는 커다란 차이가 인지적 능력보다는 정서적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민족사관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교사의 특성’을 조사한 김홍원(2000)연구를 통해서도 우수한 영재 교사와 평범한 영재 교사를 구분짓는 커다란 차이는 지적인 능력보다 정서적인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영재교사들이 지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적 태도가 더욱 중요함을 설명하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과정 수정전략, 교과 내용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 일반교육과 차별화된 유능한 교수·학습능력 및 능력 관련 자질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는데, 이는 이윤옥, 김현철, 이정규(2007)의 연구에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은 지적 자

질>개혁적 자질>인성적 자질 순으로 나타난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이윤옥 외(2007)의 연구에서 학교급별로 영재담당 교원 자질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 중 인성적 자질은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나 초등학교 영재담당교원의 경우 인성적 자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결과와는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영재 담당교사들이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손민경, 2003; 심규철, 김현섭, 2006; 윤미라, 2010; 이윤옥 외, 2007; 정기영, 전미란, 최승언, 2008; VanTassel-Baska, 2003)는 연구대상을 초등교사로 국한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음을 고려할 수 있는데, 박경희, 서혜애(2007)의 연구에서도 중등 교사들이 초등 교사에 비해 지식기반 전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초등 영재교사들은 모든 범주에 걸쳐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비해 자신의 실행수준을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재담당교사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김미숙, 정경란, 2008)처럼 영재담당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환경적,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윤미라(2010)는 또한 영재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연수 기회의 부족이 중요도 인식 수준은 높으나 실행 수준은 낮게 나타난 결과에 일부 이유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황현경(2011)은 영재교사의 영재교육 실행수준에 있어 교육청의 정책, 학교장 및 일반교사의 인식, 학부모의 관심도, 영재교사의 전문성, 업무과다 또는 시간부족, 영재교육 관련 예산 등을 장애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풍토 및 교육여건,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수업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황기반 전문성' 범주의 중요도 인식과 실행수준 평가간의 차이가 평균보다 높았다. 박경희, 서혜애(2007) 연구에 따르면 상황기반 전문성은 교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구성요소들로 예컨대, 소속 학교장과 동료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및 협력관계, 대인관계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획득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Fromm(2005)은 영재교육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교육청의 정책, 일반교사 및 학부모의 관심, 학교장의 인식 등을 제시하면서 상황기반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교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영역이기 때문에 영재교육 운영 현장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 범주의 중요도 인식과 실행수준 평가간의 차이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과 '현 영재선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안목', '영재의 행동을

보고 잠재된 영재성을 관찰해낼 수 있는 능력' 등의 문항에서 중요도 인식과 실행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은 현 영재판별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영재선발과 관련 전문성은 매우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에 비해 실행수준은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영재선발 방법 중 새롭게 도입된 관찰-추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과도기적 현상이라 분석할 수 있으나 영재선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초등학교 영재교사는 영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안목이 영재 담당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높은 지적 능력, 멀티미디어 기술 및 각종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의 중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적, 전문적 영역의 자질보다는 교원이 교육 및 교육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상과 신념 등이 포함된 철학적 영역의 자질을 중요시하는 Maker(1982)의 입장과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지닌 인간,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반성을 의미하는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김홍원(2002), 한기순(2005) 등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일곱째,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영재교사 자질의 중요도와 실행수준 차이는 '학문적 전문성'이 가장 많은 평균의 차이를 보이고 '상황기반전문성', '유능한 교수학습능력', '의사소통기술 및 영재판별능력'이 그 뒤를 이었다. '학문적 전문성', '유능한 교수·학습능력'은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만 실제적인 실행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재 담당교사들이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천이 잘 안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박경희, 서혜애, 2007; 손민경, 2003; 심규철, 김현섭, 2006; 윤미라, 201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의 '교수학습능력 및 전문적 특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영재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재 담당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즉, 연수 프로그램의 기본 영역과 내용을 마련하고 중요도 및 실행수준을 통한 강조점 등을 중심으로 영재 교사교육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실제적 제언들이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일반화하기에는 지나치게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특정 지역의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초등 영재교사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질에 있어 영재학생, 영재학부모 및 일반교사 인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영재교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담당 영재교사의 인식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또는 일반 교사의 인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 측면에 있어 좀 더 다각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개념도 방법으로 도출된 영재교사가 지녀야 할 바

바람직한 자질에 대한 인식과 실행수준 평가는 추후 성공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재교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질에 대한 생성 진술문, 영재교사 자질의 중요도와 실행수준 평가에서 나타난 자료들은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고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의 근거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재교사들이 바람직한 자질 형성에 근접할 수 있고 중요도 인식과 실행수준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학교수준의 개입과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초등학교 영재교사는 영재교사의 '이해와 관용의 자세', '인내성·성실성', '지원적·수용적 자세'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영재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인지적 특성과 호기심, 유머와 같은 개인의 선천적 성격 및 성향을 보다 효율적,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발 기준과 절차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호감, 최선영 (2004). 과학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관한 연구. **과학교육논총**, 16(1), 137-160.
- 김광찬 (2005). 초등정보과학 영재교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김미숙, 정경란 (2008).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영재교육 만족도 분석. **한국교육**, 35(2), 153-172.
- 김홍원 (2000). 영재교육 담당 교원 양성 및 임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2002). 영재교육담당 교원양성 및 임용방안. **영재교육연구**, 12(2), 87-111.
- 김흥희, 한기순 (2011). 창의 · 인성교육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의 개념도. **영재와 영재교육**, 10(1), 49-72.
- 박경희, 서혜애 (2007). 영재교육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탐색연구. **영재교육연구**, 17(1), 77-98.
- 박영근 (2004). 초등학교 영재교육 운영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주대학교.
- 손민경 (2003).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심규철, 김현섭 (2006). 지역 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담당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생물교육학회지**, 34(4), 479-484.
- 이윤옥, 김현철, 이정규 (2007).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및 교수능력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6(3), 221-233.
- 이은화 (2009). 암묵적 접근에 따른 바람직한 영재교사상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정용 (2010). 영재관별에서의 관찰-추천 시스템의 방향 탐색.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이충원 (2003). 정규 대학원 과정과 단기 직무연수과정 이수에 의해 양성된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 지식수준과 업무 준비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양희정 (2007). 대전지역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 현황 및 인식 비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윤미라 (2010). 초등학교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실행수준 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장영숙, 구자역 (2002). 언어영재 판별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아동학회지**, 23(6), 139-152.
- 전경원 (2000). **한국의 새천년을 위한 영재교육학**. 서울: 학문사.
- 전경원 (2004). **새로운 영재재능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 정기영, 전미란, 최승연 (2008). 과학영재 담당교사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조사연구. **영재교육연구**, 7(2), 161-177.
- 정송 (2004). **학부모 상담과 영재지도 교사론 VI**. 서울: 한국유아영재교육연구소.
- 정찬석(2005).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측면 탐색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철 (2007).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1); 과학영재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센터.
- 조연채 (2005). 수학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형숙 (2003). 초등학교 영재교육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차석빈, 김홍범, 오홍철, 윤지환, 김우곤 (2008). **사례를 통해 본 다변량 분석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 최한나, 김삼화, 김창대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관계 역량. **상담학연구**, 9(1), 181-197.
- 한기순 (2005).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담론. **영재와 영재교육**, 4(2), 5-29.
- 한기순, 양태연 (2007). 최근 국내 영재교육 연구의 흐름: 2000~2006년 연구를 분석. **영재교육연구**, 17(2), 338-364.
- 한기순, 이정용 (2011). 영재교사들이 지각하는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방향, 중요도, 실행수준 분석. **영재교육연구**, 21(1), 107-122.
- 황현경 (2011). 영재교사들이 인식하는 영재교육 운영 현황과 운영 장애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Giorgi, A. (1985). Sketch of a psychological and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Giorgi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p. 12-28). Pittsburg,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55-171.
- Goodyear, R. K., Tracey, T.J.,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Johnsen, J. A., Biegel, D.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67-75.
- Kane, M. & Trochim, W. M. K. (2006).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California.
- Landrum, M. S. (2001). Professional development. In M. S. Landrum, C. M. Callahan, &

- B, D. Shaklee (Eds.), *Aiming for excellence: Annotations to the NAGC pre-K-grade 12 gifted program standards*. Prufrock Press, Inc.
- Maker, C. J. (1975). Training teacher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 comparison of models. Res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Maker, C. J. (1982).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gifted*. Rockville. MD: Aspen Systems Corporation.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cep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86-93.
- Paulson, B.I.,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46*. 317-324.
- Trochim, W.(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26.
- VanTassel-Baska, J. (2003). *Curriculum Planning & instructional design for gifted learners*. Denver: Lover Publishing Company.
- Whitlock, M. S., & DuCette, J. P. (1989). Outstanding and average teachers of the gifted A comparative study. *Gifted Child Quarterly, 33*(1). 15-21.

* 논문접수 2011년 10월 31일 / 1차 심사 2011년 11월 30일 / 게재승인 2011년 12월 16일

* 한기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 대학에서 영재교육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영역은 영재교육과 창의성이다.

* e-mail: han@incheon.ac.kr

* 이현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재교육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인천석정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0162630525@nate.com

Abstract

Using a Concept-mapping Approach to Explore the Desirable Qualities of Elementary Gifted Teachers

Ki-Soon Han*
Hyun-Joo L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elementary gifted teachers' perception of the desirable qualities by concept-mapping and find out the importance of each statement describing the desirable qualities and their own level of practice. For this, 11 teachers solicited, gathered and analyzed statements, and then did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In addition 193 elementary gifted teachers rated the importance of each describing qualities of gift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heir own level of practic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40 statements were solicited and as a result of concept mapping the desirable qualities of gift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categorized as 'academic professionalism', 'openness · flexible in teaching', 'competent teaching · learning ability', 'capacity of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attitude of understanding and tolerance', 'patience · sincerity', 'supportive and accommodative attitude', 'communication skills and ability to identify the gifted', 'context-based professionalism' by 9 categor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practice levels across all 9 categories. Implications of the study related to gifted education practices were discussed.

Key words: concept-mapping, desirable qualities, gift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gifted education

* Professor, University of Incheon

** Teacher, Incheon Seokjeong Elementary School